

한국삼공(주) 수원공장



한국삼공주식회사

‘친환경·첨단 생명공학기술’로 고객요구에 부응할 것

농약 효시기업 자부심 곳곳 베어, ‘소수 정예화’로 알찬 운영
‘환경안전팀’ 신설 민원 제로화 유인, ‘靜中動’속 지속 성장

농업 전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가 큰 도전으로 다가선 가운데 후자들은 FTA추진의 불가피함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이런 가운데 과거농약에 대한 선입견,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 농약을 보는 이런저런 세간의 시각과 만능인양 확산되는 친환경농업과의 공존을 위한 해법 찾기는 현재 우리 농약산업이 지닌 난중지난(難中之難)임이 분명하다. 돌파구를 찾아야 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올해 들어 정밀화학제품인 농약의 선진 제조 과정 및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농약 및 제조환경,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과 선입견을 해소코자 마련한 여덟 번째의 장(場). 거대물류가 집하되고 재분산 되는 서울에 인접해 있어 제품의 이송과 분배가 용이한 한국삼공(주) 수원공장(공장장 朴基銖)을 찾았다.

36임직원, 알차고 당찬 기업 이끌어

“한 업종을 40여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한국삼공(주)는 한국 농약산업의 효시기업으로써 구성원 모두는 적지 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는 하나 되어 한국농업 발전을 위해 일조하고자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농약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비자들과 좀더 가까워지는 등 우리 국민만의 독특한 정서인 정(情)으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26년을 한결같이 한국삼공에 열정을 쏟아 부은 朴공장장의 소회와 일성이다. 그러면서 朴공장장은 “수원공장은 한국농업 발전의 심장부인 농촌진흥청 및 유관기관과 이웃해 있어 새로운 지식과 정보교류가 용이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조류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해 R&D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음을 드러낸다.



1930년 조선삼공을 모태로 시작한 한국삼공(주)는 1968년 설립되었다. 1974년 지금의 자리로 공장을 이전한 후 20여년이 지난 1995년에 주변 공장건물을 확장, 액상수화제 생산설비를 갖추는 등 해방이후 우리나라 농약산업의 역사와 함께 해온 기업이다.

현재 7,000여명의 부지에 공장인원은 정규직만 36명이다. 그러나 정예화 된 소수 덕분에 생산능력대비 1인당 매출액은 업계 수위임에 이견이 없을 만큼 알차고 당찬 기업이다. 수입완제품 포함 연간 130여 품목을 이곳 수원공장에서 생산·출하하고 있다.

철저한 안전교육·시설, 사고율 제로 도전

“이익창출의 근원은 영업이고 무엇보다 영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朴公장장은 그래서 공장의 첫 번째 경영목표도 ‘영업정책에 부합되는 생산작업’으로 정했다. 치열한 경쟁속의 영업시나리오에 맞추지 못하는 생산은 의미가 없다는 소신이다. 물론 이런 소신에 불편과 비용이 수반되기도 한다. 朴公장장은 이에 대해 “생산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생산효율의 일정 저하가 있지만 적기적소에 공급되지 않는

생산은 그야말로 ‘생산을 위한 생산’일 뿐”이라며 단호하다. 오로지 영업정책에 맞추는 생산만이 소비자의 신뢰구축에 일조할 수 있다. 朴公장장은 또 이의 일환으로 “월1회 본사 영업·기술·자재관리팀장이 모여 생산조정회의를 열어 생산량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며 시의적절한 물량공급을 위해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제조 종사자를 위한 환경 및 안전시설에 대해 朴公장장은 “현 시대는 환경분야가 기업운영에 있어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인구 100만 시대를 유인해 가고 있는 지역의 발전으로 공장 주변이 점차 아파트 단지화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더불어 사는 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설명을 이어간다. “긴급상황 발생 시 배출된 오염수 160여톤의 저장이 가능한 집수조가 있으며 집진 및 탈취설비 운용과 국소배기 시설을 세분화하여 가능하면 냄새나 분진이 작업장 내에서 휘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고 있다. 실제 공장 배수로에 우렁이가 생존할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약산업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고자 2003년 생산·화학·설비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식견을 겸비한 직원을 선발, 공장의 환경과 안전을 전담토록 하는 ‘환경안전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환경, 안전시설의 가동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공장 사고율 제로화를 위해 연2회 산업보건안전협회와 환경보건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의식 교육을 실시, 무재해 2,200일도 달성한 바 있다.

朴公장장은 또 농약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내다보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그



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농약산업은 인류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중요한 산업이다. 여러 여건을 감안, 일정량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마냥 하향 곡선을 나타낼 수 없는 필수농자재다. 특수계층을 위한 특수농법의 농산물로는 결코 자급자족할 수 없다. 작물보호계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며 꾸준히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해 일련의 시각들을 일축한다.

그러면서 농약을 보는 도심지 소비자의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서는 “의약품은 무조건 안전하고 농약은 독극물로서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진제하고 “의약은 사람과 동물이 대상이고 농약은 식물이 대상인 대상의 차이가 있을 뿐, 병·해충을 구제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물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의약품도 오·남용하면 목적하지 않은 의외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농약의 안전성은 등록과정에서 모든 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만큼 라벨(포장지)에 표기되어 있는 취급방법과 사용법대로만 사용한다면 잔류걱정 없이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훌훌 털어내고, 건강하고 풍성한 식탁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끝을 맺었다. 

미니 인터뷰

朴基銖 공장장

■ 순수 국내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제품 생산 및 공급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상시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농약산업 자체가 계절산업이다 보니 인력수급에 있어 한시적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곳 104~5만의 인구 중 불과 5만 정도가 원주민으로서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업주부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곳으로 이전당시만 해도 부지가 꽤 넓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품목 수의 증가 등으로 13,000톤을 상회하는 생산량을 소화하기가 다소 무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농약 생산현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우려 섞인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해를 위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단순히 위험할 것이라는 제조현장에 대한 걱정스러운 시각일 뿐입니다. 또 고농도의 원액을 취급하는 현장에서 결코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실제 직원들은 각종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약사용자 중 일부가 방제장비 미착용으로 중독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위험성이 더 많을 수 있는 이곳 제조현장에서는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보호 장비 착용으로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주요 계획 및 실적은?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13,000톤 정도의 올해 사업분 생산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내년도 사업분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어떤 특별하고 거창한 계획보다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공장설비의 자동화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 민감한 주변 주택단지 거주인들의 민원 제로화를 위한 내부 설비보완도 꾸준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